

코리언 좌완 선발 듀오 “메이저리그를 정복하라”

3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어김없이 국내외 스포츠 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민족의 대이동’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집에서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며 연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현명한 ‘연휴 계획’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민속 씨름과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안방 팬들을 찾아간다.

KIA, ‘가을야구’ 길목 키움·두산과 6연전



지난 8월18일부터 2연전을 벌이던 프로야구는 팀당 20~29경기를 남겨 둔 이번 주부터 다시 3연전 시스템으로 복귀, 정규시즌 막판 일정을 소화한다.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KIA는 주중 키움과 두산을 상대로 원정 6연전을 치른다.

28일 현재 6위 KIA는 61승 54패를 기록, 5위 두산(62승 4무 53패)을 1게임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시점에서 에이스 브룩스의 갑작스런 전력 이탈이 변수다.

지난 25일 kt전에 대해 선발 장현식을 투입했지만 2와 1/3이닝밖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브룩스의 다음 등판 예정일인 10월1일 빈자리를 메울 토종 투수진의 역투가 절실하다.

KIA는 29일부터 2위 키움(71승 1무 52패)과 3연전을 시작으로 10월2일부터 ‘5강 싸움’ 승부처인 두산과 만난다.

올해 맞대결에서는 KIA가 두산에 3승 9패로 열세다.

지난 8월28일 SK전에서 시즌 9승째를 거둔 뒤 5경기 연속 승수 쟁기에 실패한 양현종은 두산을 상대로 KBO 리그 역대 5번째 7년 연속 10승에 도전한다.

KIA가 키움과 두산의 6연전에서 선전을 펼친다면 3.5게임차인 3위 LG(65승 3무 51패)도 추격 가시권에 들 수 있다. KIA는 LG보다 4경기가 더 남아있다.

파이널A 광주FC, 대구戰 승전고 올린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은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승점 51로 같고 다득점으로 1, 2위가 나뉘는 선두 경쟁이 치열하다.

울산은 10월2일 상주와 만나고, 전북은 10월3일 포항과 격돌한다.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팀 창단 첫 파이널A에 진출한 광주FC는 10월3일 오후

스포츠 풍성한 추석 연휴... ‘집콕’하며 TV 중계로 즐기자!



류현진

토론토 블루제이스		
1선발	2	3
류현진 (1987년생)	타이 워커 (1992)	맷 슈메이커 (1986)
신체 192cm / 115.6kg	195cm / 106.6kg	189cm / 102kg
자책점 2.69	2.70	4.71
이닝당 출루허용률 1.15	1.16	1.08
승/패 5승/2패	4승/3패	0승/1패
탈삼진 72	50	26

1	2	3선발
잭 플래허티 (1995)	애덤 웨인라이트 (86)	김광현 (1988년생)
195cm / 102kg	204cm / 106.6kg	188cm / 88kg
4.91	3.15	1.62
1.21	1.05	1.03
4승/3패	5승/3패	3승/0패
49	54	24



김광현

‘한가위 하면 씨름’ 모래판 최강자는 누구?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씨름은 위더스제약 추석 장사대회가 29일부터 강원도 영월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다.

남자부 4개 체급과 여자부 3개 체급에 걸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추석 당일인 10월1일 남자부 태백장사 결정전이 열리고 2일 금강장사, 3일 한라장사에 이어 4일 백두장사 결정전이 치러진다.

류현진·김광현·최지만, PS 주역으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은 30일 막을 올리는 포스트시즌의 첫 판문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현진에겐 개인 통산 5번째 가을야구지만 지난해까지 7년간 몸담았던 다저스 시절과는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

다저스 시절에는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이키(휴스턴), 워커 블러 등 경쟁한 선발 자원들과 부담감을 나눠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팀의 막중한 책임을 지닌 에이스로 가을야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류현진의 첫 상대인 탬파베이에는 최지만의 소속팀이라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타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최지만은 지난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최근 수비 훈련까지 소화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포스트시즌 출전에 청신호를 켜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힘겹게 가을 잔치에 합류함에 따라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게 됐다. 김광현은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를 잇는 팀의 3선발 투수로 바리크 포스트시즌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SON은 없지만 이강인·황희찬 있다

토트넘에서 뛰는 ‘손세이셔널’ 손흥민은 부상으로 올해 한가위 연휴에 출전이 어려워졌다.

손흥민은 지난 27일 열린 뉴캐슬과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다쳐 30일 열리는 첼시와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에 출전할 수 없다.

손흥민은 10월2일 마카비 하이파(이스라엘)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0월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도 결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황희찬(라이프치히), 이승우(신타트라위탄), 이강인(발렌시아), 황의조(보르도)는 모두 10월4일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태극전사들, LPGA·PGA ‘한가위 샷’ 열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솔라이트 클래식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에는 한국 선수들이 ‘한가위 샷’을 준비하고 있고,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은 연휴 기간 내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스트로크 대결로 코트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광주FC, 한가위 3대3 윷놀이 ‘승자는 누구’

주장팀 vs 부주장팀...승부 예측 이벤트 내달 2일까지 카카오톡 ‘광주FC’로 참여

맞춘 팬 50명 추첨 대상품 등 푸짐한 상품

프로축구 광주FC가 추석을 맞아 윷놀이 맞대결을 펼쳤다. 승자팀은 과연 누구일까.

광주는 28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선수단의 3대3 윷놀이 승부 결과를 팬들이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통 놀이인 윷놀이 게임으로 추석 명절 분위기를 돋우고,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단을 직접 보지 못하는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3 윷놀이에 참가한 선수는 여름, 이요름, 윌리안, 여봉훈, 한희훈, 펠리페.

6명의 선수들은 각각 주장팀과 부주장팀으로 나뉘어 활기찬 분위기 속에 윷놀이 게임을 진행했다. 특히 외국인 선수인 윌리안과 펠리페는 처음 접해보는 한국의 전통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며 서로의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벤트 참여는 최종 승자팀이 공개되는 10월2일 오후 12시까지 카카오톡 광주FC로 승자팀을 예측(주장



팀/부주장팀)해 전송하면 된다.

광주는 승자를 맞춘 팬 중 50명을 추첨해 선수들의 애장품과 구단 MD상품(옥스퍼드 블록, 2020 사인블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3대3 윷놀이 이벤트 영상은 광주FC 공식 홈페이지(www.gwangjufc.com) 및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아프리카TV)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장 여름은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랜선으로나마 같이 호흡하고 싶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작년 창단 첫 우승부터 올해 첫 파이널A 진출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응원해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희중 기자

벤투호 vs 김학범호 ‘스페셜매치’

10월9일·12일 고양서 두 차례 평가전

한국 축구대표팀의 베테랑 공격수 이정협(29·부산)과 김학범호로 승격한 오세훈(21·상주)이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스페셜 매치에서 신구 스트라이커 자존심 경쟁을 펼친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9일과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질 A대표팀(23명)과 올림픽 대표팀(23명)의 친선경기에서 나설 선수들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축구협회는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두 차례 스페셜 매치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코로나19로 대표팀 경기를 보지 못한 국내 축구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유럽과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하는 만큼 모두 국내 K리그 선수들로부터 채워졌다.

이번 명단에서 눈에 띄는 것은 K리그 토종 스트라이커들의 맞대결이다.

벤투 감독은 이정협과 김지현(강원) 등 2명의 공격자원을 선택한 가운데 김학범 감독은 김대원(대구) 송민규(포항) 엄원상(광주) 오세훈(상주) 조규성(전북) 조영욱(서울) 등 무려 6명의 공격수를 뽑았다.

중원에서는 노련미가 돋보이는 벤투호 선수들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중원의 조율사’ 윤빛가람(울산)이 2016년 5월 스페인 평가전 이후 4년4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고, 주세종, 한승규(이상 서울), 손준호(전북)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학범호의 공격자원으로 활용됐던 이동준(부산)과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울산)가 벤투호로 월반한 것이 눈에 띈다.



28일 열린 한국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친선 경기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파울루 벤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왼쪽)과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는 김학범호의 중원은 ‘축구돌’ 정성원(대구)를 비롯해 이승모(포항)와 맹성웅(안양) 등을 포진시켰다.

수비진에서도 벤투호는 홍철(울산), 권경원(상주), 김문환(부산) 등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를 호출했고, 김학범 감독 역시 강윤성(제주), 정태욱(대구), 이유현(전남) 등 올해 3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우승 멤버들을 불러 모았다.

골키퍼에서는 K리그 무대에서 라이벌 대결을 펼치는 벤투호의 에이스 조현우(울산)와 김학범호의 수호신 송범근(전북)이 자존심 싸움을 준비한다.

/연합뉴스